

가족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매진

부산광역시지회 운영, 시민과 함께



박 남 철

부산광역시지회 회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는 2004년도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 박남철 운영위원(부산의대 비뇨기과 교수)을 새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부산 시민의 모자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모 저모를 살펴보자.

협회와의 인연과 현재 하고 계신 일

1986년 군의관 (국군부산통합병원) 시절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속의원에 파견돼 정관시술을 하게 된 것이 인연이었다.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페이요클리닉에서 연수하였으며 일본 오사카 의대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남성의 학회장, 성의학회, 부산대병원 기획실장을 맡고 있으며 부산대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협회 창립 43주년을 돌아보며

창립된 지 43주년이 지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그동안 출산율 조절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제 새로운 가족보건복지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협회는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장려하는 아가사랑후원 사업, 인공임신중절 예방, 남녀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식보건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이러한 새로운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부산광역시지회 발전을 위하여

우선 다양한 가족보건복지사업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지회는 앞으로 협회 주력 사업인 모자보건 사업과 청소년·가정복지사업, 국가 암 예방 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인병 검진 사업, 성인병, 어린이 검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갱년기 여성교실과 건강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독거노인 방문사업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질병 예방 사업과 복지사업을 보다 확충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협회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지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가족보건복지 증진 등 각종 사업계획에 의한 27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심의·확정하였다.

서정승 지회장의 개회사와 이시백 협회장의 격려사로 진행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인구의 자질 향상과 가족보건 복지증진, 생식보건 서비스의 내실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재정 자립 등에 대한 기본 목표를 세우고 주요사업 추진 전략도 확정했다.